

붉은달 푸른해 · 나쁜형사, 장르물 승부수 띄운 MBC



탄탄한 장르물 신작으로 무장한 MBC가 OCN에게 '장르물 명가'라는 타이틀을 빼앗기 위해 나섰다. 지난 11월 21일 MBC 수목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 (극본 도현정·연

출 최정규), 12월 3일 월화드라마 '나쁜 형사' (극본 허준우·연출 김대진)가 차례로 첫 방송 됐다. MBC 드라마는 올해 단 한 번이라도 시청률 10%를 넘은 미니시리즈

가 '내 뒤에 테리우스' 1편 밖에 없던 MBC가 완공됐다. 극과 극의 색채를 지닌 완성도 높은 두 장르물을 내세워 안방극장의 이목을 끌기 시

완성도 높은 드라마들 안방극장 이목 끌기 시작

작한 것이다. 월화드라마 '나쁜 형사'는 연쇄 살인범보다 더 독한 형사와 연쇄 살인범보다 더 위험한 천재 사이코패스의 아슬아슬한 공조 수사를 그린 드라마다. 영국 BBC 유명 드라마 '루터'를 리메이크해 국내에서는 낯선 새로운 스타일의 범죄 수사 드라마를 그려냈다. '호텔킹' '황금주머니' 김대진 PD가 연출을 하고 허준우 강이현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나쁜형사'는 첫 방송부터 19급 편성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살인 범의 죽음을 방관하는 형사의 모습을 담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 장편을 통해 주인공 우태석의 '나쁜형사'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었다. 우태석은 선과 악의 경계에 서서 법의 영역을 넘어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기존 수사물에서는 보기 어렵던, 나아가 사회 전반에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었다.

선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 신하균의 호연, 여기에 원작을 적당히 비틀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만큼 빠른 전개로 펼쳐지는 이야기, 한 편의 누아르 영화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색감과 연출이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에 '나쁜형사'는 첫 방송부터 평균 7.7%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더니 둘째 날 방송에서는 시청률 1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수목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는 의문의 아이, 의문의 사건과 미주한 아동 심리상담가 차우경(김선아)가 시(詩)를 단서로 진실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에 첫 방송부터 사망 사건의 단서로 시구가 연이어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의문을 극대화, 스릴러 장르 특유의 묘미를 자아냈다. '붉은 달 푸른 해'는 몰입감 넘치는 극본과 연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음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앞서 드라마 '비밀 아지마리의 비밀'을 집필하며 스릴러 장르에 두각을 드러냈던 도현정 작가가 복선을 촘촘히 깔아 펼친 이야기 편이 눈을 땔 수 없는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시를 각 사건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작품 전체에 스산한 분위기를 더하는 도구로 영리하게 사용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화정' '옥중화'를 연출했던 최정규 PD가 자아낸 잿빛 화면은 작품의 음울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힘을 실고 있다. 특히 주인공 김선아는 교통사고로 아이를 죽인 죄책감부터 남편의 불륜을 폭도하고 자신의 아이를 유산하며 겪은 마음의 고통, 미스터리한 사건을 미주했을 때의 공포감까지 고스란히 표정에 담아내며 '역시 김선아'라는 이름값을 푹푹하고 있다. 여기에 각자의 비밀을 품은 미스터리한 주변 인물들 남규리, 차혁연, 김자진까지 조연들의 열연도 더해져 긴장감을 증폭하고 있다. 시청률은 4%대로 낮지만 높은 완성도로 입소문을 타며 장르물 마니아 층을 사로잡고 있다.

'동물의 사생활' 예능과 다큐의 만남,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들의 사생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예능과 다큐의 만남이다. KBS 2TV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들의 사생활' (이하 '동물의 사생활')은 스타가 자연 다큐멘터리의 감독이 되어 경이롭고 신비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촬영해 미니 다큐멘터리를 완성시키는 프로그램. 이하니, 박진주, 성열, 엘은 흑등고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남태평양 타히티 섬으로 떠나 대자연과 마주하고 있다. '동물의 사생활'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난 스타들의 도전을 생생히 담아내며,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의 사생활'이 시청자의 반향을 이끌어 낸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지닌 색다른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 진정성 있는 스타들의 도전, 자연과 동물의 교감과 공존이라는 기획의도에 호평이 이어진 것. '동물의 사생활'만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 장밋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의 볼거리

'동물의 사생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연이 선사하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볼거리다. 파란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어미와 새끼 흑등고래의 모습은 어떤 예능에서도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광경을 시청자들에게 안겼다. 물결치는 파도 위 힘차게 물을 뿜어내며 나타난 흑등고래, 그들의 반가운 꼬리치기 인사는 황홀함을 자아냈던 장면. 탁 트인 바다와 하늘, 그 속에 여유로운 동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은 예족을 벗어나는 놀라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 꾸미지 않은 스타들의 모습과 진정성

초보 다큐멘터리스트가 된 이하니, 박진주, 성열, 엘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진정성을 불어넣고 있다. 촬영에 앞서 기획, 조사, 수중촬영을 위한 연습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멤버들. 직접 카메라를 들고 흑등고래를 찾아 나서는 이들의 모습이 리얼해서, 또 꾸미지 않아서 더욱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다가왔다. 특히 이하니와 성열은 바다 입수까지 망설이지 않는 열정을 발휘했

다. 촬영 하루 만에 까맣게 태버린 발, 얼굴 등이 그들의 몰입을 엿볼 수 있던 대목. 흑등고래가 나타났다. 때 "찍어보면 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엘의 인터뷰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스타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다큐멘터리 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주는 감동 메시지

이하니는 흑등고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지난 2회 방송에서 어미와 새끼 흑등고래

의 감동적 순간을 포착하며 몽글몽글을 안겼다. 어마가 아이를 보호하는 듯한 흑등고래 어미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흑등고래의 모습에는 공감을 넘어 따스한 감동까지 전했다. "가슴이 찡찡했다"는 이하니의 소감은 그 어떤 연출로도 만들 수 없는 감동과 교감의 순간을 선사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사생활'만이 가지는 의미이자, '동물의 사생활'을 계속 봐야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동. 쉽게 접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동물의 사생활'이 전하는 재미와 울림은 계속된다. KBS 2TV '동물의 사생활'은 7일 밤 8시 55분 3회가 방송된다.

가수 김동률X아이유, 협업곡 '동화' 발매



'동화' 같은 만남이다. 가수 김동률이 더욱 원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이번엔 발매하는 '동화'에는 김동률 목소리에 아이유의 보이스가 더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얻고 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단독 콘서트 투어를 진행 중인 아이유는 지난 10월말 부산을 시작으로 11월 광주, 서울로 이어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연 킷'의 북보적 위업을 입증했다. 이어 아이유는 12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까지 아시아 4개국 투어를 이어가며 해외 곳곳에 있는 현지 팬들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투어를 이어가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아이유는 김동률을 위해 바쁜 스케줄에도 지

원사격에 나서며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신곡을 발매하기만 하면 음원차트 '올킬' 시키는 저력을 드러내는 아이유와 독보적인 음악으로 대중을 감동 시키는 김동률이 함께 호흡을 맞춘 '동화'는 어떠한 울림을 선사할지 기대가 쏠린다. 아이유의 협업곡 '동화'를 발표한 후, 김동률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8 김동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공연은 1분만에 3만석이 전석 매진됐다.

홍남이치 | www.h-nom.com
 4대방송권(라디오·방송·신문·신문)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오늘의 순세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음력 11월 1일)



▶**경자년** 1, 3, 8, 11월생은 상담이나 거레가 유리하게 전개되는 날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긴장을 풀지 말고 착실하게 나아가라. 사업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은 시기.



▶**계해년** 2, 4, 7, 9월생은 허황한 꿈을 버려야 사업이 탄탄하게 유지되겠다. 지금 내실을 기하고, 작은 이익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내게 유리함을 알라. 나, 시, 오 성씨 직장인은 건강 체크를 꼭 할 것.



▶**을사년** 3, 6, 7, 10월생은 애정 문제로 다투리하며 여성을 쫓아다닐 때가 아니다. 벌여놓은 일이 실적을 내도록 힘써야 할 때다.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다가 애정도, 사업도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 마음을 추스르라. 사교 조심.



▶**미오년** 4, 5, 7, 8월생은 남의 말에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이 궁리, 저 궁리하는 격. 그렇지만 남, 서쪽 목, 나 성씨만을 의지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말은 그냥 흘려들으라. 나, 자, 을 성씨는 매매 건이 성사할 수.



▶**신유년** 나, 사, 을 성씨는 나름대로 문제를 하나, 둘 청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격. 물세가 적을 피할 방법은 진실과 지혜 그리고 인내다. 쥐, 토끼, 말띠 도움으로 순간을 모면해도 길게 볼 때는 오히려 해가 될 듯. 1, 3, 9, 10월생은 변동 수 있다.



▶**축축년** 3, 4, 5, 6월생은 남, 서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그곳 사, 자 성씨는 존경함으로써 큰 것을 얻는다. 파란색이 길하다. 나, 오, 을 성씨는 물건을 버리지 말라. 후회하게 된다.



▶**정미년** 2, 4, 7, 10월생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품은 찬사를 받을 만하나 개인적으로는 매사 순화만 보게 된다. 다른 사람 사정을 봐주는 것도 적당 선에서 할 것. 나, 자, 을 성씨는 생각이 크지만 행동이 작아지니 반성하자.



▶**병신년** 1, 3, 6, 8월생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는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은 삼가라. 처음에는 성과가 있는 듯해도 결국 뒤처진다. 나, 오, 을 성씨는 급히 서두르다 보면 허점이 노출될 수 있으니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



▶**정미년** 1, 2, 5, 9월생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열중할 때다. 인정에 끌리다가 울상이 될 듯. 나, 자, 을 성씨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일에 성과가 나타나 기분 하루가 되겠다. 서북쪽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하니 거절하지 말라.



▶**정미년** 1, 2, 3, 6월생은 친구와 동업하거나 보증을 서주지 말라.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해도 결국 홀로 채우도 짊어지고, 친구도 잃게 된다. 나, 오, 을 성씨는 사업에도 지치고, 사랑에도 지친 마음을 잡을 길이 없구나.



▶**정미년** 2, 4, 7, 11월생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애정운이 길한 날이니 내 어떤 말도 상대에게 통할 듯. 잘 활용하는 하루로 삼으라. 나, 오, 자 성씨는 생기가 넘치고 컨디션이 좋은 시기.



▶**정미년** 2, 10, 12월생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나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여성 중 생일이 홀수라면 홀로서기에 힘들어 병까지 들 수 있으니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라. 짝수라면 필수로 한층 힘이 날 듯.